

<h1 style="margin: 0;">디지털 방송 정책 방향</h1>	<h2 style="margin: 0;">차 양 신</h2>
	<p>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장</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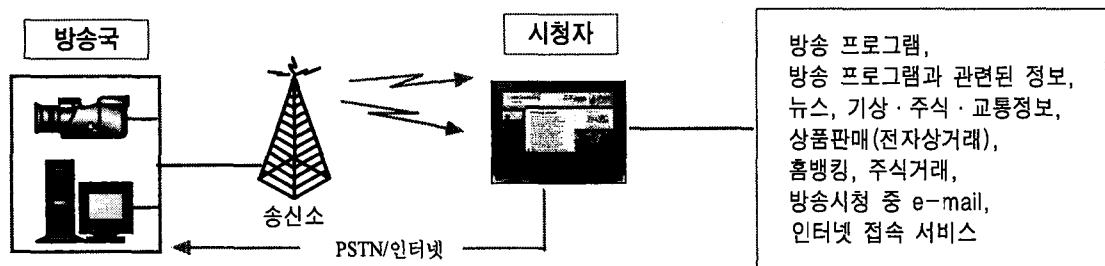
I. 들어가는 말

세계경제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터넷의 폭발적 확산 및 지식정보 이용의 획기적 증대 등을 통해 고도 지식정보사회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Digital Economy, New Economy 등의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서 경제·사회발전의 패러다임마저 변화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방송분야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되면서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을 촉진하고 있다. 방송이 21세기 고도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디지털화된 방송망은 누구나 손쉽게 값싸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e-Commerce도 가능하게 하여 PC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종합정보매체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기술이 프로그램 제작·편집 등 이미 우리나라 방송의 일부 분야에 도입된 것은 사실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방송은 2000년부터 시작되고 할 수 있다. 2000년 9월에 실시될 디지털 지상파 TV 시험방송은 이러한 시작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아날로그 방송		대화형 디지털 방송		통신(PC, 인터넷)
- 대중적·친근함 - 일방향 정보제공 (수동적 정보이용) - 오락 정보 위주	}	- 대중적, 친근함 - 양방향 정보제공 (시청자가 직접 참여) - 가족이 공감하는 정보 - 전자상거래, 인터넷 가능	}	- 젊은 층 위주 - 양방향 정보제공 - 개인적, 전문적 정보

*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자상거래(Business to Consumer EC)의 경우 통신망보다 방송망을 더 많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

[그림 1] 디지털방송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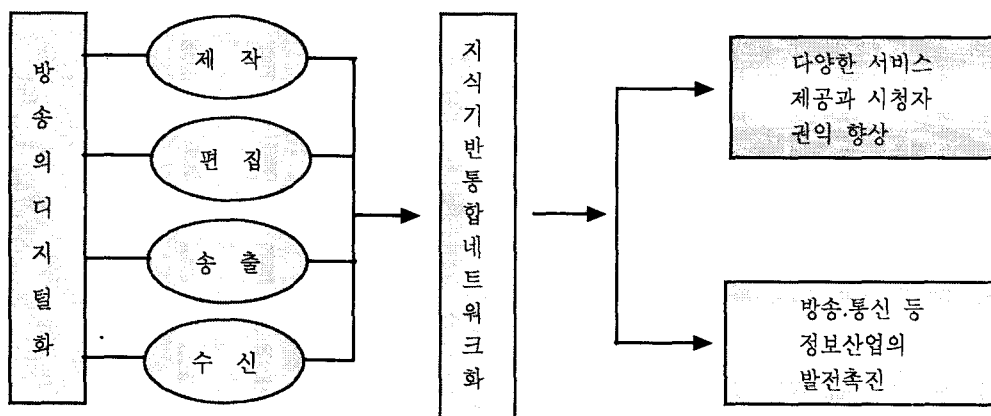
이는 컬러TV 도입보다 더 큰 방송혁명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0년 1월 12일 새 방송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비록 급변하는 방송환경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새 방송법에는 디지털방송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정, 다채널 위성방송 도입을 위한 규정, 그리고 방송기술개발 지원의 제도화를 지향하는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 방송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새 방송법 제정의 의의는 본격적인 디지털방송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0년은 우리나라 방송발전의 역사적인 획을 긋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새로운 방송법 체제하에서 디지털 기술이 방송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우리 방송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 글을 통해 이러한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방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디지털 방송의 의의와 영향

2-1 디지털방송의 개념 및 의의



[그림 2] 디지털방송의 의의

디지털방송은 방송신호를 조작이 용이한 0과 1의 Bit로 변환하여 송출하는 방송이다. 디지털방송기술은 프로그램을 압축과 복원이 용이하여 아날로그 방송보다 많은 정보량을 보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날로그 방송보다 적은 주파수 대역이 소요되므로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고 고품질이 가능할 뿐 아니라, 방송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편집·저장·가공할 수 있고 PC 등 통신미디어와 접속·연계사용이 가능하므로 다른 매체간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은 방송서비스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방송산업을 발전시키며 방송의 규제체계에 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방송은 고도 지식정보사회에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지식·정보를 주고 받으며 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인프라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특히 디지털방송은 전통적인 오락의 제공은 물론 정보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하게 됨으로써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의 경계를 허물고, 방송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산업 전반의 발전과 경쟁을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2-2 방송서비스의 변화

디지털기술의 도입으로 지상파방송의 경우 아날로그 1채널을 이용하여 3~4개의 디지털채널을 운용하거나 영화수준의 고화질 및 CD수준의 음질을 제공하는 HDTV 1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1개 아날로그 채널당 8~10개의 디지털 채널이 가능하고, 방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자원이 풍부해 수백개 채널까지 방송할 수 있게 된다. 다채널화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몇 개의 채널에 10~30분 간격으로 방송하는 NVOD(Near Video-On-Demand)서비스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방송은 종합 편성의 방송에서 세부적인 장르로 분화되어 전문방송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채택으로 전통적인 방송은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형태의 복합 서비스로 변모될 것이다. 모든 신호체계의 처리 및 전달기술이 디지털로 융합되고 통합됨에 따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 검색해 볼 수 있는 「부가 서비스(Enhanced Service)」에서 리턴채널을 통해 주식·기상정보 등을 제공하는 「대화형 서비스(Interactive Service)」에 이르기 까지 다양각색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방송망을 이용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형태로서 통신과 방송의 구분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주요인이 될 것이다.

2-3 방송산업의 변화

방송서비스의 변화는 기존의 방송산업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다. 디지털 기술 채택과 디지털 위성방송의 도입은 방송전송 비용의 획기적인 하락을 가져온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 진입이 용이해져 방송·영상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PerfecTV 도입전 20여개에 불과했던 위탁방송사업

자(우리나라 케이블TV PP에 해당)가 현재는 100개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좋은 예이다.

또한 방송산업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채널시대의 도래는 기존의 지상파 중심의 독·과점적 구조를 완화시키고 매체·채널간의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비롯한 방송 선진국에서 볼 수 있듯이 뉴 미디어의 등장은 지상파 위주의 방송구조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도 시장점유율이 2000년 90%를 초과하고 있는데 2005년경에는 70%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산업의 경쟁 도입과 방송·통신의 기술적 융합 현상은 그 동안 분리하여 발전해 온 매체간의 제휴, 합병 등을 촉진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방송 서비스도 포함되는 복합미디어 그룹을 출현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간의 기술제휴나 자본통합을 통해 매체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시킬 것이다. 특히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통합과 이것의 글로벌화는 방송산업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가속시킬 것이다.

2-4 규제체계의 변화

방송을 포함한 언론규제의 원리는 『공개된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진리와 허위가 자유롭게 싸운다면 시장의 자기 교정 과정을 통해 옳과 眞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상의 자유시장론'에 기초하고 있다. 즉 여러 사상들이 자유롭게 생성되고 유통될 수 있는 환경-공개된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는 경우에만 정부의 간여가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방송은 인쇄매체와 달리 한정된 수의 채널을 몇몇 소수의 언론기관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언론이 소수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의 다채널화가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전통적인 방

송 규제의 논리 - 방송 자원의 희소성 논리 - 를 약화시킨다.

반면에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방송사간의 경쟁촉진에 따른 이해의 대립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방송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은 어떻게 유지하고 일정 영역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는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숙제이다.

2-5 새 방송법의 주요 내용

이러한 방송 환경의 변화를 새 방송법에서도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새 방송법은 기존의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한국방송공사법이 하나로 통합되었다.

우선 새 방송법에는 위성방송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위성방송은 방송매체중 다채널화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매체이며,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장 빠른 매체로서 이의 도입은 국내 방송구조의 변화와 방송영상산업 발전에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방송채널을 보유한 지상파 방송사, 위성방송사업자 그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채널을 빌려 방송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도를 마련하고 등록제를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방송 시대에 대비하고 방송에 본격적인 경쟁 개념을 도입하였다.

셋째, 뉴 미디어에 대한 대기업·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을 완화하고, 매체간 교차 소유·겸영을 허용하여 방송사간 합병·겸영이 일부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자본의 뉴 미디어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를 허용하여 방송의 세계화 추세를 반영하였다.

넷째,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방송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국가적·종합적 차원에서 디지털방송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매체별 디지털방송 도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통신·방송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Ⅲ. 정부의 디지털방송 정책방향

새 방송법의 발효와 더불어 정보통신부는 방송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한 제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진 일정이 확정된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물론, 케이블TV·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를 포함하여 전 방송 매체의 디지털화를 균형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통신·방송융합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며, 다채널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1 디지털 지상파 TV방송 도입 추진

주요 선진국에서는 디지털TV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디지털TV 방송을 본격 추진하여 미국과 영국은 이미 '98년도에 본 방송을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지난 '99년 디지털 지상파 TV 조기방송을 위한 정부의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방송사·제조업체·연구소 등 관련기관이 안정적으로 디지털TV 방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TV 테스트베드구축을 위해 정보화촉진기금 54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99년이 디지털TV 방송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해였다면, 금년은 디지털TV를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일반 국민들이 디지털TV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2001년 디지털TV의 본 방송이 차질 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0년 9월에는 시험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표 1> 매체별 디지털화 추진일정

구 분	시험방송	본방송
지상파TV	2000년 9월	2001년
위성방송	96년	2001년
라디오방송	2002년	2003년
유선방송	2001년	2002년
데이터방송	2001년	2002년(월드컵게임이전)

협방송은 지난 1999년 6월부터 실시 중인 실험방송의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검증·보완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실제 시청자를 대상으로 최종 준비하는 단계로서 디지털TV 수상기를 가진 시청자들은 실제 디지털TV 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 된다. 시험방송이 실시되면 TV수상기, 부품, 방송기기, 콘텐츠, 방송서비스 시장은 물론 광고, 캐릭터 시장 등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는 등 국민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에는 실험 및 시험방송을 통해 방송사는 디지털방송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디지털TV방송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디지털TV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본 방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며, 제조업체에서는 본격적으로 저가형 디지털TV와 셋탑박스(STB)등을 개발·생산하게 될 것이다. 방송사 및 가전업체는 2000년 6월 현재 디지털방송을 위해 약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부에서는 디지털TV 방송을 위한 허가, 채널배치, 재원조달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준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먼저 디지털TV 등장에 따라 달라질 허가 절차·기준 등을 고려하여 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연내 허가를 추진하되 기존 방송사에게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아날로그TV 채널 외에 전국 지역별·방송사별로 디지털TV용 채널을 사전에 배치하기 위해 -아날로그/디지털TV 동시방송을 위해 각 지

역별 방송사에게 2개의 채널이 필요하다- 이미 1999년에 전국 기간시설의 디지털TV용 채널 배치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한편, 2001년 본 방송을 실시할 수도권의 경우 난시청 해소를 위해 동 지역의 간이 중계기 채널배치(안)도 금년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HDTV 및 SDTV 운용에 대해서는 지상파는 수백 채널의 위성·케이블과 차별화하여 HDTV를 지향하되, 다만 초기 SDTV 병행방송을 허용하여 HDTV 의무비율을 부여할 계획이다. 호주 등 외국사례와 국내 실정을 고려하여 조사연구한 결과 디지털방송 이후 1년차는 주당 10시간, 2년차에는 주당 20시간을 의무화하되, EBS와 지역민방(SBS 제외)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디지털TV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므로 지난 1999년 7월 확정된 디지털 지상파TV 조기방송 종합계획에서 결정된 대로 방송사가 희망할 경우 차관자금, 체신금융자금 등을 통한 용자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관세감면, 광고제도 개선, 가전업체 협찬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후 추진할 예정이다.

3-2 디지털 위성방송 허가 추진

정보통신부는 작년초 방송개혁위원회의 '통합방

송법 즉시 위성방송 도입' 건의 이후 이미 발빠르게 지난 한 해 동안 위성방송 조기 도입을 위해 기술표준 정비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성방송사업의 핵심기술인 수신제한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의 기술표준을 확정하였고 위성방송 송출시스템과 수신시스템의 기술표준을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고시하였다. 그 동안의 실험방송의 검증 결과, 위성방송의 기술 발전과 세계의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다채널 위성방송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새 방송법에 의거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 추천권을 부여받은 방송위원회에서는 금년 5월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추천 추진방향 및 6월에 위성방송사업자 허가 추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개혁위원회 건의에 따라 단일사업자로 하되 이를 위해 3단계로 단일그랜드컨소시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로 사업자간 자율조정에 맡기고 이것이 결렬될 경우 2단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단일컨소시움 구성을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3단계로 심사선정방식에 의거 사업자를 허가 추천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사업자 공개청문 등을 통해 단일컨소시움 구성을 강력히 유도하고 있으며, 7월 중순에는 법정절차를 개시하여 사업자 허가 추천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의 경우 방송위원회에서 위성방송 허가 추천을 할 경우 조속히 위성방송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 심사를 거쳐 위성방송국을 허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현재 위성방송 허가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 중이다.

한편, 정보통신부에서는 위성방송 관련 기술표준을 완비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기술표준이 완전히 정립되어야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술기준은 지난 1월 31일 개정·고시한 바 있으며, 세부 기술표준을 정하는 '위성방송송수신 정합규격'은 KBS·한국통신·DSM 및 수신기 제조업체 등과 필드 테스트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위성방송에서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교육방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화형 원격교육 방송기술을 ETRI를 통해 개발하고 교육방송기관으로 하여금 이 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듯 2000년 위성방송국이 허가되고 2001년 하반기에 본 방송이 실시됨으로써 1993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위성방송 도입의 역사가 일단락 되게 된다.

3-3 데이터방송 조기 활성화 추진

방송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방송망을 통해 영상·음성 이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방송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데이터방송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주부, 중장년층도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어 가정의 정보화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데이터방송 세계시장이 2003년에 가입자 275만명, 시장규모도 약 3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에서는 1999년부터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방송은 아직 국제표준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에서는 금년에 국내 표준방식 결정, 핵심기술 개발 등을 위해 데이터 방송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이를 방송사, 기기제조업체, 연구소들이 기술개발의 장으로 활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표준방식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방송을 통한 인터넷·전자상거래 활용기술, 대화형 영상압축·복원기술(MPEG-4/7) 등 차세대 핵심기술의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4 라디오방송의 디지털화 추진

디지털 오디오방송(DAB : Digital Audio Broadcasting)은 기존 라디오방송 신호(음향)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라디오방송으로서 이동수신이 가능하며, CD수준의 음악 방송 및 교통정보, 뉴스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정보(문자, 그래픽 형태 등)의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 FM 채널 부족으로 적체되고 있는 신규 방송국 개설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1987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1995년 첫 방송을 시작하여 현재 북·서유럽의 약 18개국에서 방송을 실시 중에 있으며, 미국의 경우 1990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 현재 2가지 방식을 놓고 성능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1995년부터 독자방식을 개발하여 2000년부터 실험방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2003년 디지털 라디오 방송의 도입을 목표로 조속히 국내 기술방식을 결정하여 관련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세계 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방식간 비교평가·검증작업을 거쳐 금년 말까지 국내기술방식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라디오방송은 유럽에서도 아직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험방송 결과, 수신기 가격 추이, 시장수요, 세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도입전략을 수립·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라디오방송은 방송사업자가 시스템 구축, 자원마련 등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기술개발 지원 등을 담당할 계획이다.

디지털방송으로의 완전전환은 수신기 보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되 상당기간 동안은 아날로그방송과 공존 유지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소, 학계 전문가로

추진반을 구성하여 기술방식, 도입일정 등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중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3-5 유선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기반조성

유선방송의 디지털화는 프로그램공급업자(PP)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종합유선방송국(SO)과 전송망(NO)을 통해 시청자까지 디지털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유선방송을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아날로그방송 시설에 프로그램을 디지털신호로 제작·압축·전송하는 장비가 추가로 필요하며, 기존시설은 디지털 장비로 대체 또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유선방송의 디지털화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지상파 및 위성방송이 디지털화를 통해 다채널화·고화질화 되고 있어 유선방송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유선방송은 다른 방송매체에 유리한 양방향 및 고속·대용량 전송이 유리한 특성을 살려 고품질의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데이터방송, VOD,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를 통해 유선방송의 수익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국내 디지털 유선방송의 도입은 새로이 형성되는 디지털 유선방송 관련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국내시장 기반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디지털 유선방송망은 아날로그TV보다 고품질화된 400여개 채널 이상의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등 디지털화된 통신망과 접속·연계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핵심 인프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유선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유선방송이 상업성이 강한 다채널방송임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주도적,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방

침이다.

정부는 순조로운 디지털 전환을 위해 지상파·위성 등 타매체와의 경쟁 및 산업적 효과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추진일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한편, 기술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적시에 표준방식 확정, 기술기준 제정, 기술개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투자의욕 및 능력을 갖춘 사업자부터 2002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에서는 유선방송 표준방식과 기술기준을 2000년말까지 확정하여 고시할 방침이다.

3-6 디지털 방송산업의 육성과 수출전략 산업화

최근까지 방송의 산업적·경제적 성격이 공익적·문화적 성격에 비해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결과로 방송산업과 기술은 정보통신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져 있는 측면이 있다. 새로운 방송법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방송기술 및 시설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함과 아울러, 기술의 개발·활용 및 수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에서는 첫째, 방송기술 발전 및 시설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중점전략기술 선정, 연구개발체제정립, 기술개발 투자계획수립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제작기술, 신호처리기술, 송·전송기술 등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8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산학연 공동연구 촉진 및 실험검증·개발결과의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디지털방송기술센터(DTTC : Digital TV Technology Center)를 설립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방송과 관련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창출함은 물론 디지털TV, 셋톱박스 등 유망제품의 수출지원

을 통해 디지털방송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다. 이 경우 디지털TV의 경우 1999년 시장 점유율 10% 수준에서 2010년까지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방송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산업 또는 관련기관간에 유기적인 상호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 수출지원, 인력양성 등을 담은 “디지털방송산업 종합발전계획”을 금년내에 마련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러한 제반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2001년에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과 위성방송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001년 디지털방송시대의 개막은 TV를 단순한 오락용 단말기에서 통합화(Integrated)되고 지능화(Intelligent)된 대화형(Interactive)의 가정형 종합정보단말기로 탈바꿈시켜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한 단계 더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정보통신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번 도약할 수 있었던듯이 디지털 방송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디지털방송의 성공적인 추진과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화형 기술, 비선형 편집기술, 전자상거래 연동기술 등 디지털방송 관련 기술의 적극적인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방송기술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방송사, 제조업체, 연구소, 학계 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고도 지식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방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여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디지털 방송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필자소개 ≡

차 양 신

1977년: 서울대 전자공학과(공학사)

1982년: 서울대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1994년: 영국 웨스트민스터대학(언론학석사)

1995년: 제주체신청장

1995년: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 기획총괄반장

1996년~1997년: 대통령비서실 행정 담당관

1997년: 정보통신부 부가통신과장

1998년: 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장

1999년~현재: 정보통신부 방송위성과장